

[QT 세미나]

묵상은 역동적인 것이다

이상규 목사 / 1999 / 페이지수: 2

“「묵상」이란 말의 원뜻은 ‘지저귀다’, ‘말하다’, ‘경영하다’, ‘도모하다’, 심지어 ‘으르렁거리다’이다. 그리고 그것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그 율법의 뜻을 되새기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.”

1. ‘묵상’의 뜻

대개 ‘묵상’이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요히 눈을 감고 명상하는 사람의 모습이다. 침묵과 고요다.

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‘묵상’은 이런 정적인 이미지를 넘어선다. 우리가 ‘묵상’에 대해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본문으로 꼽는 두 구절(시1:2, 수1:8)만 보아도 그렇다.

우선 이 두 구절(시1:2, 수1:8)에 쓰인 ‘묵상’이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 ‘하가’를 살펴볼 때, 이 ‘하가’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듯이 단순히 침묵하며 고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.

그 말의 원뜻은 ‘지저귀다’, ‘말하다’, ‘경영하다’, ‘도모하다’, 심지어 ‘으르렁거리다’이다. 그러므로 시편 1편과 여호수아서 1장에서 율법을 묵상한다는 의미는 최소한으로 말해도 ‘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그 율법의 뜻을 되새기는 행위’를 뜻하는 것이다.

2. 적극적 의미의 묵상

그런데 앞서 말한 두 구절을 그 각각의 문맥(context)에서 볼 때 묵상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다. 즉 시편 기자는 복있는 사람이란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(시1:2)라고 말하기 위해 강력한 문학적 대조기법을 사용하고 있다.

그래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‘악인의 꾀’, ‘죄인의 길’, ‘오만한 자의 자리’라는 자기 중심적 시대정신의 복판으로부터 과감히 출애굽적 결단 - ‘좃지 아니하며’, ‘서지 아니하며’, ‘얹지 아니하고’ - 할 뿐 아니라(시1:1), 이제는 마치 가나안에 들어서서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지성소에 두고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결과로 늘 푸른 나무로 성육화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묘사하는(시1:3) 것이다.

3. 묵상은 영적승리의 힘

그리고 보면 묵상하는 삶이란 세속적 세계관과의 치열한 영적전투에서 승리케 하고 복된 삶의 정상에까지 이르게 하는 힘인 것을 알 수 있다.

또한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볼 때 '목상'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.

왜냐하면 이 본문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당시 고대 근동의 세속적, 우상적 세계관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, 광야에서 여호와와 율법을 받고 드디어 수세기 전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할 구원사의 획기적인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이다.

그런데 이 위대한 여호와 전쟁이 극한적 긴장 속에서 '율법 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목상하며 지키는' 행위는 그 어떤 칼이나 창보다 강력한 전쟁의 힘이었나 가나안 시온에 이르게 하는 형통의 원리로서 제시되기 때문이다.

이로 보건대 '목상'이란 세속적 삶의 중심축으로부터 사람을 이끌어 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의 복된 땅에까지 이르게 하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강력이요 그 원천인 것이다.

*** 출처 : QT신문**